

CONSTRUCTION NEWS

최저가 대상 PQ기준 이원화

조달청, 일반최저가 별도기준 제정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모두 PQ기준을 적용해 부실업체를 가리되 PQ대상공사가 아닌 일반 최저가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PQ기준이 제정돼 심사가 이뤄지며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 절차가 2단계 심사방식으로 전환된다.

조달청은 지난 3월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도권 지역의 시설분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역점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민형중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저가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이 이뤄지는지 등 이행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될 경우 부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Q대상 공종 이외의 일반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정해 운용하되 기존 PQ대상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은 현실에 맞게 보완키로

했다.

또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2단계 심사방식으로 개선해 1단계에서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발주기관의 조사가격과 입찰자의 투찰 평균가격을 동시에 반영한 뒤 2단계에서는 주관적 심사기준을 제정해 발주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저가심의회를 구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앞으로 관련기준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조사가격과 입찰자 투찰평균가격을 각각 어떤 비율로 반영할지와 주관적 심사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확보될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무리한 저가투찰을 예방하면서도 낙찰률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조달업체들의 입찰참가 비용과 낙찰자 선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중소 및 지방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때 시공경험 평가 만점기준을 완화하고 시설공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도 도입과 기술용역제안서 평가제도 도입, PQ 및 적격심사 기준 개정 등을 통해 우수계약자가 선정되도록 계약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정공사비 책정을 통한 정부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적용 중인 실적공사비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과 사용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실적공사비 적용을 내실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할 때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를 취급하고 검토일수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공사진도에서부터 안전관리 상태, 하도급 실태, 부실시공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은 물론 저가심의 때 제출된 자료와 실제 집행내용을 점검,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추후 가격자료로 활용하는 등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낙찰받은 공사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원가계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설자재의 가격조사 가정에서 소요규모별 가격조사방식을 도입하는 등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되도록 하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췄거나 신뢰도가 높은 생산자를 지정해 가격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 방법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퇴직공제금 납입액 100% 인상

노동부, 올 주요업무계획 발표



올 해 노동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
제금 납입액을 인상하는 등 저출
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대책을 추
진한다.

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가
산재를 예방하는 '위험성 평가제도'가 단
계적으로 도입되는 한편 산재요양 및 재활
등 고용·산재보험 체계도 손질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
획'에 따르면 올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 합리
화'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른 6대 정책목표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
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제도 구
축 △선진·합리적인 노사관계 기반 마련
△노사가 함께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
의 질 향상 등으로 이를 위한 24개 이행과
제가 시행된다.

먼저 노동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
한 건설 일용자 고용대책으로 △동절기 건
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제도 도입 △고
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범위 확대 △퇴
직공제 납입액 인상 △임의가입 사업주 퇴
직공제 지원수준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07년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
가제로 일원화하기에 앞서 세부계획을 마
련하고 송출국가 확대 및 관련법령 개정,
산업연수생도입중단 등 시행준비에 만전

을 기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도입
프로세스 효율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
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언어지원, 고충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기능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로 인해 인프라 보장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추가 설치(1개소), 민간 네트워크
등이 강화되며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정
부합동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과제로
국가기술자격 제도 발전 기본계획(2007 ~
2009년)을 수립하고 자격종목 및 등급체제
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한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활동
과 근로자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등 노사협
력적 산재예방활동의 기반도 마련한다.

이 제도는 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
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종합적 위험관리 활동을 말한다.

더불어 산재취약분야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강구하
되 이를 건설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
의·결정할 계획이다.

또 사망재해 다발작업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형사고 예방 및 대

응능력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보험·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국제청 등과 협조해 고용·산
재보험 누락사업장을 발굴하고 건설일용
근로자 가입 촉진을 위한 전업을 확대 추진
하는 등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험 가입률
을 높일 계획이다.

산재요양 및 재활, 급여제도 개선 등 산
재보험 전반에 대한 혁신도 추진한다.

또 고용보험은 현행 요율을 적정 적립금
규모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과세대상 소득 기준·고지납 방식 등 징수
체계를 개편한다.

건설업계 원가관리 고삐 죄다

현장 실행률 낮추고 관리시스템 강화

건설업계가 원가관리의 고삐를 죄
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경쟁
력 강화가 경영의 급선무로 떠올랐기 때문
이다.

진흥기업은 최근 전국 현장소장 회의를
갖고 각 현장별로 지난해보다 평균 2% 순
준으로 실행률을 낮추고 현장별로 이 기준
에 맞춰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

CONSTRUCTION NEWS

고 지시했다.

특히 설계변경을 통한 원가절감에 주력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저 없이 설계변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꾸준한 원가절감 노력으로 외부부문에서는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올해는 설계변경부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데도 발주처와의 관계를 감안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현장소장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외형성장에 주력해 온 GS건설도 올해 경영방침의 최우선을 ‘비용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잡았다.

GS건설은 본사의 공무·구매·예산 등 관련부서와 현장 간의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통해 외주비를 절감하고 구매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원가구조 개선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기로 했다.

GS건설은 또 두 달에 한 번씩 사업본부장 주재의 현장소장 회의를 열어 현장의 원가관리시스템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 떨어지는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원가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면서 “공정관리에 중점을 뒀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관리시스템(PMS)을 원가관리까지 확대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년 원가관리를 역점 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고유 조직구조인 현장 원가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 주

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각 현장별로 본사 공사관리부 소속 과·부장급의 원가관리자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현장별로 원가관리상황을 점검해 매월 정기적으로 본사에 보고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원가관리자는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직구조”라면서 “회계나 경리 등의 지원업무는 현장소속의 공무부서에서 맡고 원가관리자는 원가관리 지원업무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산업개발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외주관리시스템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산산업개발은 발주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구매기법의 개발을 통해 외주구매원가를 최소화하면서 원가절감을 위한 신공법·신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는 각 업체별로 현재 시공 중인 공사들의 평균 실행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업체들이 2000년 초까지 수주한 공사만 해도 수익성이 괜찮았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수익성이 괜찮은 공사들은 준공과 함께 소진되고 최저가제 공사 등 수익성이 없는 공사들이 이를 대신하면서

업체별 공사실행률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는 등 주변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원가관리능력이 수주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간소음 방지 온돌시스템 개발

건기연, 경량충격 차단 1등급

충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에너지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다기능 온돌시스템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정낙형)은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민원의 대상이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충간소음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다기능 온돌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건기연 조동우 박사팀과 오이에스가 공동개발한 다기능 온돌시스템은 방진재와 공기층을 이용한 이중바닥구조로 시공된다.

다기능 온돌시스템은 마감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을 건식화한 패널형 구조로 하부에 형성된 공간을 통해 통신 배선의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건기연은 이 시스템을 실험한 결과, 경량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과 중량바닥충격음 차단성능 3등급을 인정받았다.

조동우 박사는 “다가능 온돌시스템의 바닥 슬래브 두께는 150mm”라고 설명하고 “지금까지 이 정도의 슬래브 두께로 경량 1등급, 중량 3등급을 인정받은 예가 없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가능 온돌시스템은 이에 따라 각 층마다 최소 60mm의 슬래브 두께를 감소시켜 20층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m의 층고를 줄일 수 있다.

주공, 아파트 11만가구 올해 발주

운영계획 확정, 108개 지구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건적을 완료하고

발주할 아파트는 108개 지구 11만2,03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만가구 이상이 쏟아져 건설사들의 수주갈증을 다소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공은 이 같은 내용의 올 건적운영계획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97곳 10만 807가구, 재개발지구 11곳 1만1,229가구 등에 대한 건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6만7,721가구에 비해 65.4%가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주춤하고 각종 규제정책으로 민간 건축부문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공 아파트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다만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공종 포함여부에 관

계없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주공은 공구분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올해 발주할 공사 가운데 60% 이상이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전체의 69.2%인 7만7,586가구로 가장 많고 공공임대 5,448가구, 공공분양 2만9,002가구 등이다.

시기별로는 1분기의 경우 지난 3월 13일 입찰이 실시된 동해 송정1지구 203가구, 건적이 완료된 부산 송정2지구 등 4곳 2,762가구가 계획돼 있다.

2분기에는 4월에 1만2,005가구, 5월 1만 2,187가구, 6월에는 1만7,196가구 등 4만 1,388가구에 대한 건적이 추진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교지구는 6월에 건적이 완료돼 7월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 2006년 아파트 공사 발주계획

구 분	유 형	건설가구수	일정(월)
남양주장현2(주)	국민	1,451	6
연천전곡(주)	국민	742	5
문산당동2(주)	국민	775	8
서울상암(주환)	공임	150	7
	공분	247	7
고양행신2(택)	공분	84	8
고양일산2(택)	공분	300	12

구 분	유 형	건설가구수	일정(월)
고양행신2(택)	공분	500	8
남양주가운(택)	공분	200	11
이천갈산2(주)	국민	632	11
하남풍산(기)	국민	2,117	4
광명소하(택)(A4BL)	국민	1,175	4
광명소하(택)(A1,3BL)	국민	1,491	5
안산신길(택)(A-1BL)	국민	882	9

CONSTRUCTION NEWS

구 분	유 형	건설가구수	일정(월)
안산신길(택)(A-2,4BL)	국민	1,092	12
군포부곡(택)	국민	1,456	6
성남관교(택)	국민	4,484	8
오산세교(택)	국민	4,633	9
	공입	880	9
오산누읍(주)	국민	1,196	6
화성동탄(기)	국민	2,342	4
	공입	503	4
화성향남(기)	국민	941	3
화성태안3(택)	국민	1,658	5
용인서천(택)	국민	1,643	10
용인홍덕(기)	국민	2,503	8
안산신길(택)(B-2BL)	공분	1,144	5
안산신길(택)(B-3BL)	공분	626	9
성남도촌(택)	공분	522	12
시흥능곡(택)	공분	633	9
군포부곡(택)	국민	2,954	7
성남관교(택)	공분	854	8
성남관교(기)	공입	870	6
	공분	8,184	6
성남관교(기)	공입	1,014	6
화성태안3(택)	공분	1,698	12
용인구성(택)(1BL)	공분	618	4
용인구성(택)(1BL)	국민	765	6
용인서천(택)	공분	1,382	10
광명신촌(주환)	공분	776	12
	공분	771	12
안산신길(택)	공분	344	9

구 분	유 형	건설가구수	일정(월)
성남도촌(택)	공입	200	12
성남관교(택)	공분	496	6
	공분	1,873	6
경기(06주1)	공분	1,366	6
의왕청계(택)	국민	100	12
부산송정2(주)	국민	890	2
부산정관(택)	국민	1,533	5
부산고촌(택)	국민	1,084	8
부산정관(택)	공분	1,301	11
	공분	462	11
부산정관(택)	국민	613	9
부산내리(택)	공입	1,002	7
부산만덕3(주환)	국민	86	6
	공입	316	6
양산대석(주)	공분	1,059	8
부산내리(택)	국민	284	8
인천향촌(주환)	공분	651	5
	공입	2,201	5
인천부개(주환)	공분	297	9
	국민	172	9
	공분	591	9
김포서암(주)	국민	836	4
부천여월(택)	공분	242	8
인천논현2(택)	공분	120	12
부천여월(택)	공분	250	12
춘천거두(기)	국민	375	5
춘천만천(주)	국민	747	11
속초청대(주)	국민	371	6



구 분	유 형	건설가구수	일정(월)
원주부실3(택)	국민	1,098	5
원주부실3(택)	공분	750	7
원주문막(주)	국민	498	8
동해송정1(주)	국민	203	1
철원동송(주)	국민	332	12
횡성읍하(주)	국민	361	12
청원오송(기)	국민	1,118	4
보은이평(스)	국민	400	2
청주성화1(택)	공분	493	7
충주연수6(주)	국민	498	12
청원오송(기)	공분	350	12
대전봉산(주환)	국민	853	4
	공분	990	4
서천사곡(주)	국민	396	5
천안방죽안(주환)	공임	157	6
	공분	352	6
천안구성(주환)	공임	137	12
	공분	337	12
공주신관6(주)	국민	517	3
보령동대(주)	국민	805	8
	공분	267	8
아산신창(주)	국민	909	3
금산상리2(주)	국민	571	3
익산장신(주)	국민	1,850	11
익산읍숯골(주환)	국민	320	7
	공분	480	7
원주봉동2(주)	국민	498	4

구 분	유 형	건설가구수	일정(월)
전주효자4(택)	공분	502	8
무주남대천(주)	국민	303	12
광주방림(주환)	공임	332	9
	공분	739	9
광주용봉2(주환)	공분	274	9
무안남야2(기)	공분	698	8
목포옥암2(기)	국민	1,294	5
상주복룡3(주)	국민	440	10
대구올하2(택)	국민	3,356	6
칠곡애관4(주)	국민	528	2
경산진량(주)	국민	458	10
안동옥동(택)	공분	615	11
울진읍내(주)	국민	280	10
칠곡복삼(기)	국민	326	12
포항장량(택)(턴키)	공분	550	4
울산화봉(택)	국민	1,247	9
거제장평(기)	국민	405	4
김해올하(기)(2BL)	국민	944	2
김해올하(기)(12,13BL)	국민	2,024	8
울산화봉(택)	공분	733	9
밀양삼문(주)	국민	861	12
창원도계(기)	국민	276	8
의령서동(주)	국민	283	7
북제주고성(기)	국민	207	11
서귀포동홍6(주)	국민	602	7
남제주대정(주)	국민	300	11
파주운정1(택)	국민	5,705	7